

종합·해설

민주 비당권과 “쇄신만이 단일화 승리”

‘쇄신 토론회’서 주장...안일한 당 지도부 우회 비판 장병완 의원 “호남, 문 후보 무조건 지지 장담못해”

민주통합당 비당권과가 24일 개최한 ‘쇄신 토론회’에서는 친노(친노무현) 핵심세력의 2선 후퇴 등 특단의 쇄신 대책과 단합만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안일한 당 지도부에 대한 우회적 비판과 친노 백의중군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 승리, 민주당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며 “단합은 불신과 분열을 제거한 쇄신과 변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쇄신과 변화도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선과 단일화 승리의 핵심은 쇄신으로, 쇄신 없이 진영 논리와 계파 정치가 계속되는 한 당원이 무력화되고 단결도 이뤄질 수 없다”며 “당내 소통 부재를 비롯, 올드패션식 정당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 후보는 쇄신과 민주당의 적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혁명적 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경선 때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당내 계파문제와 관련, “친노인사라는 게 실체가 전혀 없는 것 같진 않다”며 문 후보의 친노에 대한 인식을 비판한 뒤 “너무 배타적이고 문 후보

를 뒤에서 감싸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흔적들을 보이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동료들 가신그림 7명이 임명직 포기선언을 했듯이 이들은 ‘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국민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동료들 가신그림 7명의 임명직 포기선언을 언급하며 “후보도 좀 더 포기하고 (지도부도) 지위를 모두 포기하며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라며 당권과 및 친노 핵심그룹을 2선 후퇴를 압박했다.

문병호 의원은 “적당히 봉합하고 단결하면 될 것이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당이 뼈를 깎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하며, 국회나 정당에 정치주도력을 회복하는 국가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출신 의원들도 쇄신만이 호남 지지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문 후보의 선출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호남이라고 문 후보를 무조건 지지해줄 것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위기의식 공유와 소수의견에 대한 수렴 등 말의 성찬 보다는 행동으로 열정을 불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의원은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의 쇄신을 민주당이 보여주지 못하면 안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안 후보가 되더라도 감수하고 수용하겠다는 발상의 대전환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비주류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 후보 대선행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희호 여사를 예방,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국민대학교 무인차량로봇연구센터를 방문, 무인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분란 심화 ‘이해찬의 입’ 문제인 호남민심 잡기 초비상 모바일투표 논란에 “홍행 성공했다” 반박 지지율 안철수 절반 그쳐...지지층 규합 총력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홍행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밝힌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24일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100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참여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경선 초반 파행만 없었다면 150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 논란과 지도부의 미숙한 경선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이같은 인식은 대선을 앞두고 당내 분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당내 쇄신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와 관련, “과거 열린우리당이 무려 여섯 번이나 지도부를 바꾸다가 결국 망했다”며 “대선과 국정감사가 가다

리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별다른 쇄신책 제시 없이 일방적인 사퇴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 이 대표는 “호남 민심은 양자라든 데려다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호남의 저자인 문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는 곧 바뀌게 될 것이며 실제로 호남에서의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안 후보의 대선 출마에 대해 “안 후보가 이 같은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등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공천과 관련, 이 대표는 “최고위 권한을 후보에 넘겨 지도부에서 공천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후보가 공천권을 최고위에 다시 위임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후보가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지지층 규합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은데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에서는 오히려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지난 21~22일에 실시된 월드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비박근혜 지지층 중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1.3%, 54.3%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문 후보 지지율은 28.0%에 그친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53.6%로 집계됐다.

문 후보는 24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방문, DJ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호 여사는 이날 문 후보에게 “꼭 당선돼야 한다. 당선될 것 같다”고 말한 뒤, “정권교체가 정말 중요하다”며 “민주주의를 잘 해내고 서민경제를 이뤄내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며 “이 여사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르침을 주셔서 민주개혁진영으로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25일 도라산 역을 방문한다. 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6·15, 10·4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지지를 과격하는 것으로 전통적 지지층 규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후보는 추석 직전 광주와 전남 등 호남을 직접 방문해 지지층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후보는 친노(친 노무현) 인사들을 배제하고 민평연 출신과 486 인사들을 중심으로 범계파를 규합하는 통합형 선대위 구성에 나서는 등 당내 결속도 다지고 있다.

총무본부장에 손학규 캠프에 몸담았던 우원식 의원을 임명하든 이어 공동대변인에는 정세균 의원 계열인 진성준 의원을 발탁했다. 여기에 민평연 소속의 이인영 최고위원을 대선 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선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지지율 급등 ‘무섭네’

양자대결서 박근혜 추월...문-안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 혼전

안, 대선 예비후보 등락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며 양자대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앞질렀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도 박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문 후보와 앞지러워치락 양상을 보였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집전화 및 휴대전화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한 결과, 3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38.5%), 안 후보(31.2%), 문 후보(19.1%) 순이었다. 다자대결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이처럼 박 후보에 근접한 것은 처음이다.

박-안 후보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 41.2%, 안 후보 49.9%로 안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8.7%포인트 차로 앞섰다. 반면, 박-문 후보 대결에선 박 후보(45.0%)와 문 후보(45.9%)가 초반 접전을 벌였다.

야권 단일후보 지지도는 문 후보(39.6%), 안 후보 44.6%로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안 후보(52.7%)가 문 후보(37.7%)를 앞섰고, 여론조사에서는 반대로 문 후보(47.3%)가 안 후보(35.4%)를 앞서 박 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이 지적됐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같은 기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집전화와 휴대전화 임의결기(RDD)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결과에서도 3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 37.7%, 안 후보 32.2%, 문 후보 20.7%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러나 박-안 후보 대결에서 안 후보가 49.9%를 얻어 박 후보(45.1%)를 앞질렀다. 박-문 후보 양자대결은 박 후보 47.5%, 문 후보 47.2%로 역시 초반 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46.1%로 안 후보(43.0%)보다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54.9%는 문 후보를 택했고 안 후보는 25.1%에 그쳐 역시 역선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명함 배포, 홍보물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각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안 후보는 대선 캠프 1차 실무 인선을 완료했으며, 종로2가 공평빌딩에 캠프를 차렸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도산동(고희) 대772㎡, 21786㎡ 감정가 9억5천 최저가 5억9천	순천조례 (상가, 주차빌딩) 대12136㎡, 215647㎡ 감정가 43억천 최저가 15억4천	영암삼호 (근린시설) 대777㎡, 21152㎡ 감정가 9억천 최저가 4억천	월곡동(필립, 헬스) 대1570㎡, 24742㎡ 감정가 76억8천 최저가 27억5천	치평동(일반음식점) 대98㎡, 21568㎡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6억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천	전주유대(나이트) 대1794㎡, 233968㎡ 감정가 47억4천 최저가 19억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금동(목욕탕)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 10억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광주 쌍암동(유형시설) ▷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정가 89억7천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담양금성(공장)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 1600만 ▷매매가 5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이스포츠)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	울산울주(숫가마) ▷대지 2455평 ▷건물 445평 ▷감정가 18억2천 ▷매매가 8억 (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삭이사/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원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백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왕(지하)호프, 분식60평, 원통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경매상담

-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2.특수물건 해결방법 제시
- 3.NPL 매입/투자비용 전수
- 4.단독/공동투자 가능
- 5.교육/임대비등 회비 550만원

소액투자자 대화영!

친절상담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